

# 해남 '관광·상권 활성화' 쌍끌이 노린다

## 해남군, 정부대책 맞춰 내수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 대표 축제 관광객 유도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도

해남군이 내수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 관광과 상권 활성화 쌍끌이를 노리고 있다. 정부의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내수활성화 대책 후속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은 자체 내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소비문화 조성과 취약부문에 어려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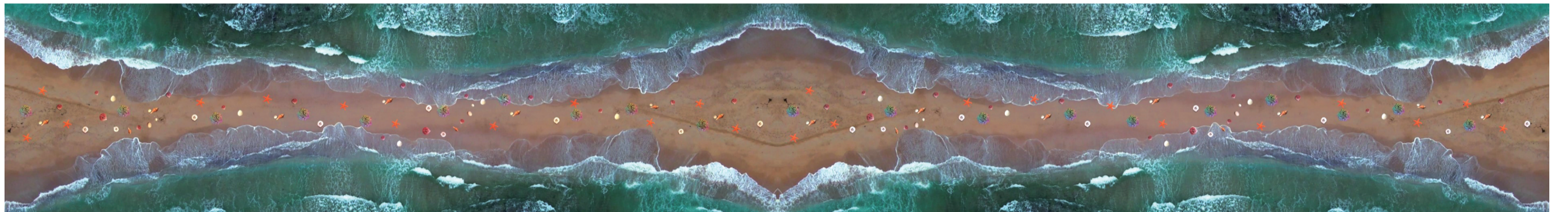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이다. 우선 올해 예산 신속집행과 더불어 1회 추경을 통해 1,268억 원을 추가 투입, 소비심리 회복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내수 진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국내관광 활

성과와 연계한 소상공인 지원을 다양하게 실시한다. 오는 5월 처음으로 개최하는 해남 어린이 공룡대축제를 시작으로 명랑대접축제, 해남미남축제 등 지역 대표 축제를 본격 활성화해 관광객을 유도하는 마중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시기별로 해남사랑상품권 10% 할인 행사와 5000억원 판매기념 특별 이벤트, '해남미소' 온라인몰의 대대적 할인행사를 병행 추진한다. 또 골목상권 활력 제고를 위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상생 지원을 적극 펼친다. 먼저 전통시장 소비쿠폰 발행을 통해 관광객의 전통시장 방문을 유도하고,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3종 패키지 사업도 강화해 경영 안정을 도울 예정이다. 해남사랑상품권 카드가맹점 결제수수료,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 풍수해보험료 자부담금, 노란우산 공제 신규가입 장려금,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사업 등 신청 접수 중에 있으며, 공공배달앱 '먹깨비' 5000원 할인쿠폰 지급으로 소상공인 소득 확충에 힘을 보탠다.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인 지원으로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취약계층 대상 공공요금 감면을 통해 서민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내수활력을 일으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게 됐다"며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 내수활성화 대책을 통해 경제회복과 민생안전을 이뤄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43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20~22일) 기간 진도군 고군면 해안도로 200m를 따라 신비의 바닷길 미디어아트 작품이 상영된다.

<진도군 제공>

## 진도 신비의 바닷길 미디어아트로 만난다

### 군, 20~22일 축제 개최...오후 7시 뽕할머니 동상 해안도로

### 복놀이·소망 조각돌 체험 등 70여 가지 전시·공연·체험 마련

진도 신비의 바닷길이 미디어아트로 펼쳐진다. 진도군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43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에서 신비의 바닷길 미디어아트를 선보인다. 바닷길의 과학적인 점·곡선·면과 생동감 있는 물의 흐름이 섬세한 미디어아트로 구현된다. 바닷

길이 갈라지는 효과를 시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행사 기간 매일 오후 7시 뽕할머니 동상에서 200m 길이 해안도로를 따라 펼쳐진다. 진도군은 체험형 미디어아트를 접목해 야간에도 관광객들이 빛과 영상으로 신비의 바닷길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축제에는 바닷길 만남 한마당, 복놀이 행진, 소망의 조각돌 체험, 무형문화재 찾고 도장 찍기 등 70여 종의 전시·공연·체험 행사가 마련됐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시각 콘텐츠인 미디어아트를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에 도입했다"며 "진도군이 보유하고 있는 천연자원과 민속·문화자원을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진도=이중수 기자 js7777@kwangju.co.kr

## 신안군, 문화예술행정을 통한 인구소멸 대응전략은?

### 서울 프레젠테이션 세미나 개최 컬러·그린·아트마케팅 홍보 등

신안군이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위드컬처·신안군 공동주관으로 '문화예술행정을 통한 인구소멸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신안군의 컬러, 그린, 아트마케팅을 통한 도전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인구소멸 시대에 섬마다의 예술, 꽃, 뮤지엄, 컬러를 통한 정체성 확립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대응을 하고자 기획됐다.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세미나는 인구소멸 시대의 지역재생 방안과 과제, 컬러 마케팅을 통한 신안군 지역재생, 그린 마케팅을 통한 신안군의 지역재생, 정원 가꾸기 등 신안군 장소 마케팅의 방향과 과제란 주제로 진행됐다. 또 인구소멸 시대의 신안군의 도전과 희망이란 주제로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장을 비롯한 10명의 패널, 관계 공무원 등이 토론을 진행했으며 신안군의 미래발전 전략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도 가졌다.



박우량 군수가 문화예술행정의 컬러, 그린, 아트마케팅을 통한 신안군의 혁신행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 군수는 '컬러 마케팅으로 이룬 혁신 브랜드 경영, 자연유산과 문화예술이 섬 1004섬 신안'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문화예술이 숨 쉬고 군민이

행복한 섬, 누구나 살고 싶은 섬을 만들고자 군민들과 적극 협력하고 앞서가는 행정혁신을 통해 변화된 신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무안읍~남악·오룡지구 '100번 버스' 시간 조정

한 달가량 운행한 무안읍-남악·오룡지구 신규 버스노선 100번이 운행시간을 조정한다. 무안군은 지난달 17일부터 무안읍과 목포터미널, 남악지구, 오룡지구를 거치는 100번 버스노선을 운행해왔다. 무안군은 기점-종점 운행 시간을 변경한다. 총 운행 횟수나 대수는 이전과 같다. 평일(6대)에는 40분마다 하루 24회, 주말·공휴일(4대)에는 60분마다 하루 16회 운행한다. 탑승객이 많은 구간에 대해서는 소요 시간을 안내한다. 변경된 운행시간표는 무안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버스 요금은 일반 2100원, 초·중·고교생과 청소년은 카드 결제 때 100원을 내면 된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신규 노선 100번 개통으로 군민의 교통 이동권 보장과 교통편의 증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 영광, 결혼 이주여성 치안봉사단 위촉

영광에 사는 5명의 결혼 이주여성이 지역 치안활동에 나선다. 영광경찰서는 지난 10일 영광경찰서 2층 무령마루에서 '영광경찰서 외국인 치안봉사단' 위촉식·간담회를 열었다. '영광경찰서 외국인 치안봉사단'은 최근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민간과 경찰의 협력 치안 활동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한다. 외국인 치안봉사단원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총 5명의 외국인 결혼이주여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신속하게 통역을 돕고, 외국인 피해자 보호와 경찰서 치안활동 홍보 등의 역할을 해낼 예정이다. 경찰 등과 협업해 지역 야간 합동 순찰에 나서고 경찰 치안정책을 홍보하며 외국인 관련 범죄 예방



정덕진(가운데) 영광경찰서장이 결혼이주여성 5명에게 '외국인 치안봉사단' 위촉장을 주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정덕진 영광경찰서장은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적극적인 민·경 협력 치안 활동에 감사를 전한다"며 "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더불어 범죄를 예방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중수 기자 jylee@kwangju.co.kr

### 기자 노트

## 신안 섬사람들이 밝힌 '희망의 빛'

신안군이 지난 2월부터 실시한 군민과의 대화(광주일보 4월 10일자 14면)가 원활한 소통 속에 마무리됐다.

박우량 군수와 지역 도·군의원, 각 실·과·소 관련자들이 동행해 섬 곳곳을 찾아다니며 신안의 미래와 전망 등의 설명과 함께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답변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지난달 신안 해상풍력 어업인 수용성 중간 보고회에서 그 어느 지방자치에서도 보여주지 못한 통 큰 결단을 보여준 데 이어 또다시 뿔뿔 뗜진 모습을 보여 '희망'을 확인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대체로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마을 공동체에 대한 요구사항이었으며 "내 뒷마당에는 안된다"는 남비현상 같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어 볼 수가 없었고 끝날 때까지 모두 자리를 함께하는 점은 인상 깊었다. 대화의 자리에서 주민들이 입고 나온 각 섬의 정원사업을 상징하는 꽃 색상의 통일된 복장은 감동 그 자체였다.

이를 보고 '섬 사람은 폐쇄적이다'는 이야기는 옛날의 편견이었구나 하고 생각했다. 군이 관광산업을 육성하면서 외지 관광객들과 많은



이상선 서부취재본부 부국장

접촉으로 경제심에서 벗어나게 됐고, 연·륙교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육지 나들이가 잦아진 영향일 것이다.

여기에 사업 시작 당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신재생에너지사업 이익공유제도가 실제 혜택으로 돌아와 주민들이 이익배당금을 받으면서 열린 군정을 신뢰하게 된 점도 한몫을 했을 것이다.

또 2029년까지 하늘길이 열리는 흑산공항을 비롯해 13개 읍·면 전 지역 연도교·연륙교 완공에 따른 주민들의 자긍심도 폐쇄적이었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섬 주민들이 단순히 마음으로만 화합하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도 보여 준 사례는 더 있다. 최악의 가뭄을 맞아 주민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물 절약에 나선 결과, 지난해 3월 같은 기간대비 5만2000t의 물을 아껴 위기를 돌파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제 1004섬 신안의 도약은 시작됐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함께 하려는 섬사람들의 모습에서 '희망의 빛'을 볼 수 있었던 만큼 그 결과는 밝고 성대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sslee@kwangju.co.kr

## 해남군 "고향사랑기금 어디에 쓸까요?"

### 5월 10일까지 사업 공모

해남군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탁된 기금의 활용 사업계획을 공모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도입 취지에 맞춰 주민복지와 각종 문화예술보급 증진, 공동체 활성화 등에 쓰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모분야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이다.

기간은 5월10일까지로 해남군민과 관내 단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군은 제안된 사업의 타당성, 사업량 및 소요예산 등 사업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6월 열리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해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해남군 홈페이지 내 공고에 게시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해남군청 재무과(061-530-5974)로 방문하거나 우편, 메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기부자와 군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금 사업 발굴을 위해서는 군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완도군, 수산물 소비 촉진 특별전

### 완도군이솜서 30일까지 할인·무료 배송 등

완도군이 전북 등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수산의 날 특별전'을 열었다.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인 '완도군이솜' (www.wandofood.go.kr) 기획관에서 큰 전복(7~11미, 1kg)을 구입 시 건당 5000원 할인쿠폰과 2만원 이상 상품을 구매하면 무료 배송 이벤트를 선착순으로 한다.

4~5월 대량 출하로 인한 소비 부진과 가격 하락 등의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4월에는 순천만 국가정원 오천그린광장에서

'전복 직거래 장터'를, 5월 4일 '완도 장보고 수산물 축제' 때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준비하고 있다.

또 TV 프로그램 유치, 인기 유튜브 연계 수산물 홍보, 온라인 쇼핑몰 할인 판매 등 비대면 마케팅도 추진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완도 수산물을 만나 보시길 바란다"면서 "어가 소득 증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비 촉진 및 홍보 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